

PHOTO ESSAY

사진산책



안원대학교

이호준 Lee, Ho-Joon | 사진가·미디어교육사·언론학박사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2회 수상하고, 일곱 차례의 개인전과 일곱 번의 단체전을 개최했다. 포토에세이 <직조>와 <걸으면 보이는>을 출간했으며, 여러 월간지와 주간신문에 사진이야기를 연재했다. 다수의 인쇄, 방송 매체에 소개되었고 대학과 지자체, 공공기관, 사진모임 초청으로 사진 강연을 한다. 초등학교 미디어리터러시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중간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중간.
일상과 심의 중간 같은 사진.
특정 주제나 내용에
치우치지 않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진



무엇을 쓸지 머릿거리거나 쓰다 멈추게 되는 것은 쓸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몰라서일 때가 많다.

문득 단어 하나가 떠오르는 순간 글쓰기가 시작된다. 무엇을 쓸지 머릿거리거나 쓰다 멈추게 되는 것은 쓸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몰라서일 때가 많다. 머릿속에는 다양한 장면과 감정, 문장과 생각이 떠다닌다. 그럴 때 마음속에 가장 선명하게 떠오르는 단어를 붙잡는 게 중요하다. 왜 이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까. 왜 이 단어 앞에서 나는 멈추는 걸까. 그 질문이 방향이 되고 첫 문장을 연다. 나는 이걸 글쓰기의 ‘프롬프트(prompt)’라 부른다. 프롬프트는 단순한 시작 문장이 아니다. 글쓰기를 가능하게 만드는 사고의 진입점이다. 방향을 잡고 쓸 이유를 묻고 글의 중심을 세운다. 좋은 프롬프트는 살아 있는 재료를 발견하고, 그 안을 파고드는 질문을 던지며, 쓸 것을 가려내는 선택으로 완성된다. 오래 품은 생각이든 순간적으로 스친 통찰이든 책 한 구절의 여운이든 내 안에서 계속 말을 걸어온다면 그건 이미 글이 되려는 무언가다. 그 재료를 끌어내는 건 묻고 또 묻는 일이다. 왜 지금 이 장면이 떠올랐을까. 질문이 있어야 글이 머무르지 않고 흘러간다. 무엇을 쓰고 무엇을 흘려보낼지 스스로 결정하는 일도 글쓰기의 일부다. 떠오른 감정과 생각을 모두 쓸 수는 없다. 문장은 덜어낼수록 본질에 가까워진다. 이처럼 글을 쓴다는 것은 단서를 붙잡고 질문을 만들고 선택하는 일이다. 이 셋이 맞아떨어질 때 문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어떤 기억은 쓰고 어떤 감정은 흘려보낸다. 그 과정의 끝에서 비로소 글이 온전한 모습을 드러낸다.